‘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소월 시에 그림을 더하다

GALLERY

김소월 등단 100주년 시그림집 출간
대표작 100편 수록…신문·잡지 기고 미발표 작품도
김선두 등 대표 화가 6인 그림 더해져 시 의미 극대화

“봄여름 가을없이 밤마다 돋는 날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 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달이 설움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것이 사랑 사랑일 줄이/
아니도 잊혀집니다.//
그것이 사랑 사랑일 줄이/
아니도 잊혀집니다.”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4연 8행의 자유시이다. 1925년 12월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소월의 대표시다. “예전엔 미처몰랐어요”라고 반복되는 후렴구는 화자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리움의 정서를 대변한다.

김소월 등단 100주년을 맞아 시그림집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교보문고)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작품집은 소월의 시를 토대로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가 쉬운 우리말로 풀어냈다.

소월은 우리 시에서 가장 폭넓게 사랑을 받는 대표 민족 시인이다. 한국 시단은 소월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그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만만치 않다. 혹자는 “우리 민족사의 그늘 깊은 삶의 정서를 그의 시 세계만큼 간곡하게 노래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소월은 1902년 8월 6일(음력)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정식이며 태어난 지 백일 후부터 본가가 있는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에서 자랐다. 1915년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오산학교 중학부에 입학해, 김억과 사제 관계를 맺는다. 이때부터 한시와 민요시, 서구시 등을 접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친다.

1920년 ‘낭인의 봄’, ‘야의 우적’ 등 5편이 ‘창조’지에 소월(素月)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며 등단한다. 1923년 배제고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지만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한다. 1925년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이 간행됐으며 1934년 안타깝게도 아편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만다.

이번 작품집에는 시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 100편이 수록돼 있다. 32세라는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시인이 펴낸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에 실린 작품과 그의 사후 스승 김억이 엮은 시집 ‘소월시초’ 속 작품 등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했으나 실리지 않은 시와 1977년 ‘문학사상’이 발굴한 미발표 작품(소월 자필 유고) 등도 실려 있어 의미와 가치가 남다르다.

수록된 작품은 ‘먼 후일’, ‘풀따기’, ‘님의 노래’, ‘봄밤’, ‘산유화’, ‘접동새’, ‘봄비’, ‘기억’, ‘애모’ 등 대체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시가 많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보문고는 소월 등단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디오 미술관’을 오픈했다. 대표 시 35편을 김선두·박영근·배달래 등 국내 중견 화가 6명이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책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디에서든 시 낭송과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는 광화문점 내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오는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교보문고 오디오 미술관 오픈…대표 시 35편 화가 6명이 그림으로 형상화

박영근 작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온라인 ‘빛고을렉쳐콘서트’
10일, 더 아시안 김유미 대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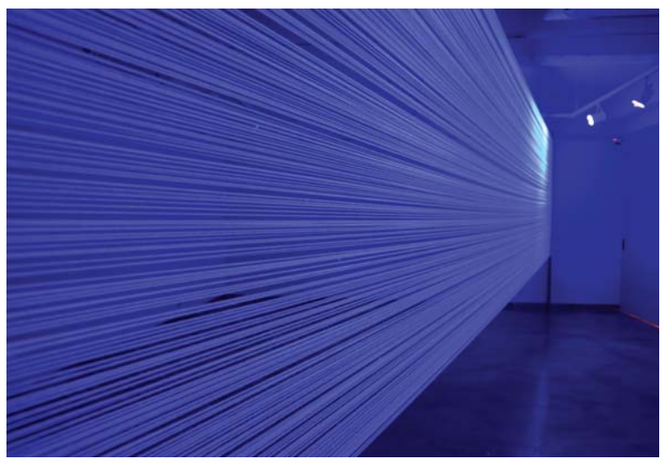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빛고을렉쳐콘서트 하반기 전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올해 다섯 번째 ‘빛고을렉쳐콘서트’는 더 아시안 김유미〈사진〉대표의 ‘고전발레를 접목한 한국창작발레의 콜라보레이션’(10일 오후 7시 30분)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백조의 호수’를 통해 고전발레의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역사적인 ‘명성황후’가 세계 최초로 국악과 만나 한국창작발레로 탄생되기까지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김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학사,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무용과 석사 및 전남대학교 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고,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현재 아시안 발레단·사단법인 더 아시안 대표로 활동 중이다. 강연은 ‘유튜브 채널 광주문화재단TV’에서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강연은 김희정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의 ‘역사 속에 가려진 음악 속의 여성’(24일)이다. 문의 062-670-79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형숙 작 ‘공간 안의 사선’

전국 지역 작가들의 ‘역설과 반전’

은암미술관, 26일까지 개관 10주년 기념전…김형숙·황순칠·김혜경 등 6명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은암미술관은 올해만 해도 5·18 40주년 기념전, 윤애근 작가 10주기전 등 지역 미술계에서 의미있는 기획전시를 꾸준히 개최하며 입지를 탄탄히 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전시 공간을 1·2층으로 확장, 좀 더 다채로운 기획전을 열고 있다.

미술관은 올해 10주년 기념전으로 지역교류전을 준비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기획이다.

‘역설과 반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을 초청해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작품 15점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초대 작가는 김형숙(전남), 김혜경(서울), 손승범(인천), 신강호(대구), 이강일(충남), 황순칠(광주)이다.

미디어아트와 전통 공예를 융합시킨 작품을 선보이는 김혜경 작가는 전통 예술품인 도자기, 화병, 분청의 편병, 장군병, 전통 가구 등에 매핑기법을 투영시킨다. 그는 미디어아트로 만들어낸 효제 문자도를 49인치 TV 8개에 병풍처럼 장엄하게 펼쳐 보인다.

독일에서 미디어와 영화를 공부한 김형숙 작가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의 현실 세계를 찍은 다큐멘터리와 실험적 이미지를 콜라주 형식으로 표현해 작가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기억이나 체험을 또 다른 영상매체로 융합시키고 있다. ‘실’로 표현해낸 사선의 움직임이 중요 역할을 한다.

서양화가 황순칠 작가는 최근작 ‘수락폭포’와 ‘황계폭포’ 등의 작업을 통해 강렬한 화면을 선보이고 있다. 아래로 쏟아지는 역동적인 폭포 이미지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한국화가 손승범 작가는 먹, 분채, 아크릴, 과슈 등을 혼합해 소재로 석고상, 성모상, 물고기, 꽃, 열매 등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연출해 거리의 설치작업처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산천초목이나 무생물에 새로운 기운과 작가의 정신을 쏟아 붓는 신강호 작가는 보잘 것 없는 나뭇가지를 조각 작품의 재료로 활용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 일상적 풍경과 봉황도를 거친 붓 자국으로 표현하는 이강일 작가는 소나무와 자화상, 봉황 탄 소년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중이다. 사전 예약제와 유튜브 온라인 전시로 진행한다. 관람 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황순칠 작 ‘황계폭포’

ACC 개관 5주년 콘텐츠 공모
개인·단체, 7~2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이하 ACC)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를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공모 주요내용은 비대면 등 일상의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ACC에서 운영해 주길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공연과 전시, 교육 등 콘텐츠의 방향성 및 개선사항 등이다.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ACC 누리집(www.acc.go.kr) ‘참여마당 - 콘텐츠공모’ 게시판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전자우편(ii07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채택된 제안은 오는 연말 발표 예정인 ACC 콘텐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ACC 기념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철재시공모습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